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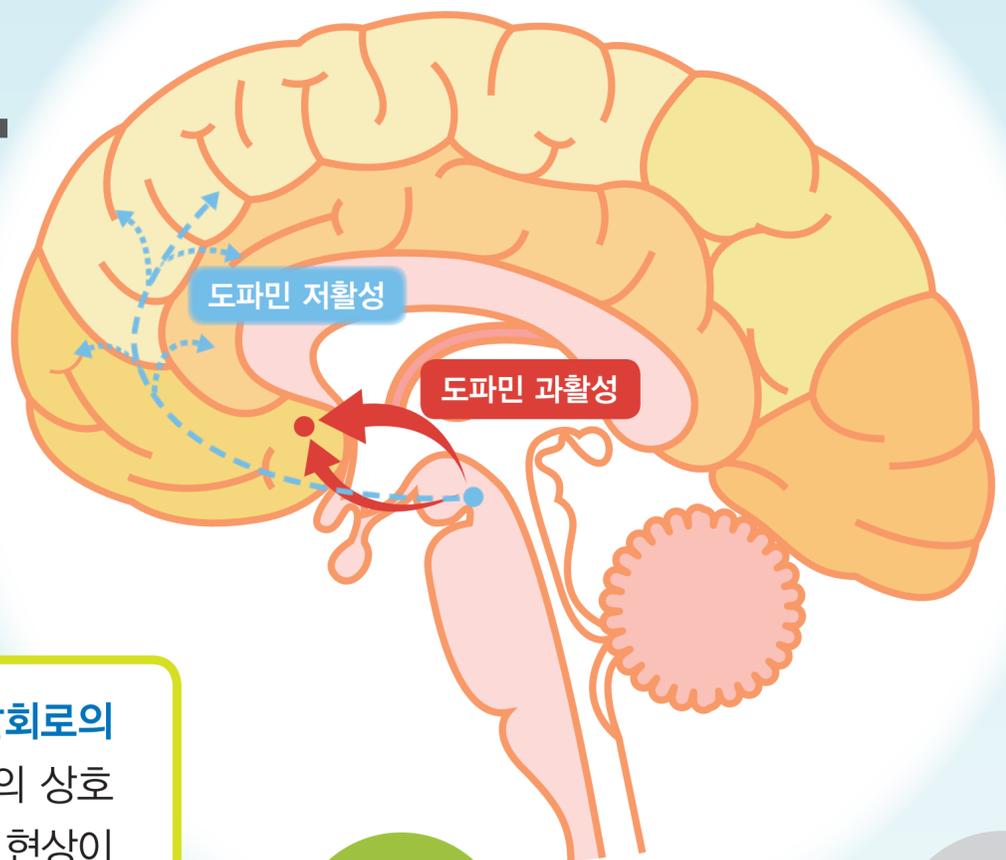
조현병은 뇌의 질환이며, 꾸준한 약물 치료로 나을 수 있습니다.

조현병은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조현병은 성격이 안 좋거나, 의지력이 약하거나,
귀신이 들려서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조현병은 뇌에서 생각, 지각,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회로의
기능 이상이 발생한 질환입니다. 뇌의 수많은 신경회로의 상호
작용에서 튜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뇌기능 저하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피아노나 기타 등의 악기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부조화스럽고 어색한 소리를 내는 현상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등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때문에 환각, 망상,
비논리적인 언어 등의 조현병 증상이 발생합니다. **뇌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을 교정해주는 치료약을 복용함으로써 증상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의학 발전에 힘입어 환청, 망상을 치료하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전세계적으로 널리 처방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꾸준한 약물 복용으로 치료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정신증상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현병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
▶ 치료가 쉽다

조현병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치료가 잘 됩니다.

암을 조기 발견하면 완치가 쉽지만, 진단이 늦어져 이미 진행된 암은 예후가 나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조현병은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발병 후 치료까지 기간이 짧을수록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증상 발생 후 즉시 치료를 시작하면 소량의 치료제만 복용해도 증상이 완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병 후 치료까지 기간이 길어지면 병이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발병 후 치료 시작이 지연될수록 고용량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발병 초기에 신속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향후 예후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



늦은 발견
▶ 치료가 어렵다



조현병은 재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현병은 발병 후 처음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환자나 가족들은 병이 다 좋아졌다며 약물 치료 중단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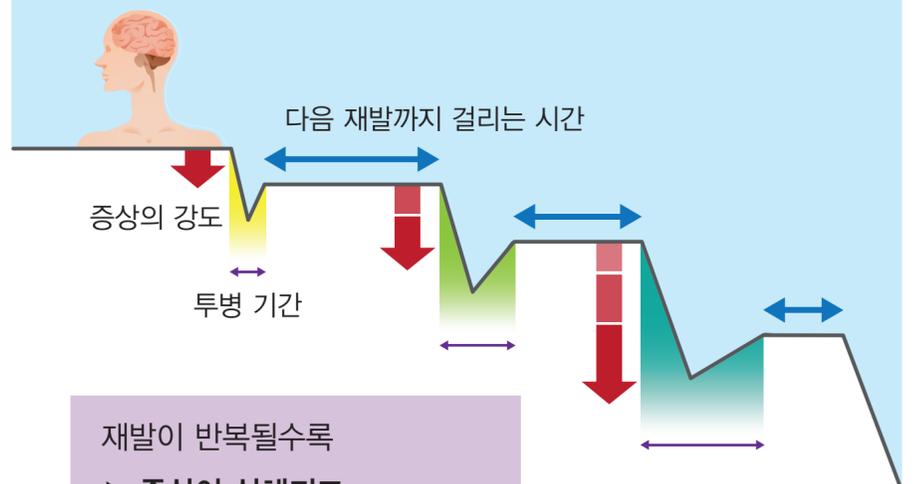
하지만 조현병은 감기처럼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만성질환입니다. **조현병은 치료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되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50~70%가 1년 이내에 재발했다고 합니다. 꾸준한 약물복용을 해야 하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유사한 것입니다.

조현병은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재발을 거듭할수록 병세가 깊어지고 약에 대한 치료 반응도 저하됩니다.**

증상이 심해지고, 증상 호전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며, 회복 정도는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암도 재발하면 치료가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조현병 치료의 핵심은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며, **꾸준한 약물 치료가 재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발 방지의 중요성



재발이 반복될수록

- ▶ 증상이 심해지고
- ▶ 투병 기간이 길어지고
- ▶ 추후 재발 간격이 짧아진다.

▶ **치료제 복용은 재발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재발이 반복되면 뇌가 손상됩니다



- 조현병의 악화는 신경퇴화현상(neurodegeneration)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약물치료를 중단하여 재발을 경험한 많은 환자들이 이전 기능수준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 조기 치료 및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